

## 주최! 진로체험 프로그램

'추천!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은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함께 가면 좋을 진로체험활동을 추천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체험이 이뤄지는지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커리어 러너(Career Runner&Learner)' '런닝맨'처럼 전시관 뛰어다니며 직업 탐색



에듀케이터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 학생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제공

각종 예술품들로 정갈하게 꾸며진 전시관. 그 뒤에는 전시 주제 기획부터 전시물의 수집·분류·관리까지 다양한 직업인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큐레이터, 아키비스트 등 다양한 문화·예술계 직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광주 동구에 위치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초등학생(4~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1~2학년)을 대상으로 일일직업체험 프로그램인 '커리어 러너(Career Runner&Learner)'를 운영한다. '커리어 러너'는 '직업·직무(Career)'를 '뛰면서(Run)' '배우는(Learn)' 프로그램이라는 의미로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은 직업별로 주어지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곳곳을 돌아다니며, 해당 직업인의 업무를 몸소 경험해 볼 수 있다.

커리어 러너의 체험 대상 직업은 △큐레이터(curator) △아키비스트(archivist)

△에듀케이터(educator) 3가지. 본격적인 체험에 앞서 학생들은 직업인 인터뷰 영상을 시청하며 각 직업군에 대해 이해하고, 하나의 직업을 선택한다. 같은 직업을 선택한 3~6인은 하나의 조를 이뤄, 태블릿 기기를 통해 안내되는 미션을 수행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당 내 위치한 실물 전시자료들을 활용해야 한다. 미션 달성 시 별점이 주어지며, 별점 개수가 많을수록 태블릿 기기에 표시되는 등급이 높아져, 학생들의 참여의욕을 높인다.

미션은 각 직업의 핵심 업무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큐레이터 체험을 선택한 학생들은 주어진 특정 주제에 적합한 전시자료들을 탐색하는 미션을 수행한다. 이는 결국 '전시기획'이라는 큐레이터 고유의 업무인 셈. 이처럼 커리어 러너에 참여한 학생들은 직업에 대한 단순한 이론적 이해를 넘어, 실제 직업인들의 업무현장을 탐방하며, 해당 업무를 생생하게 체득할 수 있다.

올해 '커리어 러너'의 운영기간은 7월 6일(금)까지로, 전국의 모든 청소년들이 참가할 수 있다. 매주 화~금요일 하루 2회(회당 90분)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꿈길 홈페이지(ggoomgil.go.kr)에서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문의 062-601-4747

▶신유경 인턴기자 [edudonga@donga.com](mailto:edudonga@donga.com)

#### 체험활동 연관 직업

\* 아키비스트 : 기록물의 수집·분류·관리·유지를 담당한다. 일명 '기록연구사'. 공공기관과 기업, 시민단체 등에서 기록을 수집하고, 해당 기록의 미래가치를 판단해 폐기와 보존을 결정한다. '기록의 홍수' 시대인 만큼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력이 요구되는 직업이다.

●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위성전문가! 제대로 알기’

## 기상위성이 하는 일, 궁금하지 않니?



천리안위성 모형 만들기 체험을 하는 학생들. 국가기상위성센터 제공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기상위성센터는 ‘기상위성전문가! 제대로 알기’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우리나라 최초의 정지궤도위성인 ‘천리안위성’을 운영하는 기상센터를 견학하는 한편 기상위성 분야와 관련된 진로 및 직업도 깊이있게 탐색해볼 수 있다. 2016년 5월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처음에는 충북 일부지역 청소년들에 한해서만 진행되었지만, 2017년 이후 대상을 한정짓지 않고, 전국적으로 넓혀 운영한다.

‘기상위성전문가! 제대로 알기’ 프로그램은 총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오리엔테이션(20분) △현장 견학(50분) △진로교육 및 체험(50분)으로 진행되는 것.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은 가장 먼저 국가기상위성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를 안내받고, 홍보동영상을 시청한다. 이후 천리안위성을 운영하고 위성자료를 분석하는 지상국 시설을 비롯해 △기상위성의 역사 △천리안위성의 개발과정 △천리안위성의 구조 및 기능 △차세대 기상위성 개발계획 등을 살펴볼 수 있는 홍보전시관을 견학한다. 견학을 끝마친 학생들은 교육관에서 천리안위성 모형 만들기 체험에 참가하는 한편 현직 위성분석전문가, 기상연구원을 만나 이들로부터 해당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진로도 탐색해본다. 프로그램 중 학생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은 천리안위성의 구조와 기능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천리안위성 모형 만들기’ 체험이다. 프로그램 담당자는 “처음에는 다소 어려운 기상 및 위성에 흥미를 보이지 않는 학생들도 더러 있지만, 프로그램이 끝날 즈음엔 대부분의 학생들이 긍정적인 평을 남긴다”고 전했다.

국가기상위성센터의 ‘기상위성전문가! 제대로 알기’ 프로그램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인원은 30명 내외 소규모 단체부터 100명 이상 대규모 단체까지 가능하고, 참가비는 없다. 신청은 사전예약제로, 꿈길 홈페이지(ggoomgil.go.kr)를 통해 하거나 전화로 하면 된다. 문의 070-7850-5709

▶이혜민 인턴기자 edudonga@donga.com

#### 체험활동 연관 직업

\* 기상연구원 : 정확한 일기예보 기법을 개발하기 위해 기류의  $\Delta$ 방향  $\Delta$ 속도  $\Delta$ 기압  $\Delta$ 온도  $\Delta$ 습도 등 각종 기상 관측 자료를 분석·연구하는 사람. 기상도를 작성하며, 장·단기 기상예보를 위해 관측 자료를 해석한다. 또한 환경, 농업, 기후변화 등의 응용기상을 연구하기도 한다. 탐구정신과 창의력을 지녀야하며, 천문학, 기상학 및 물리학적 지식 등이 요구된다.